

「작은 구름」에서 숫자 “8”과 무한대의 딜레마: 8년만의 만남을 중심으로

박 은 숙

I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작품 세계를 통틀어 명쾌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이 없는 것은 오랜 기정사실이다. 역설적으로 그러한 모호함과 난해함이 조이스 연구의 주요한 동력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조이스의 단편소설 「작은 구름」(“A Little Cloud”)(1906)에 대한 이 연구도 그러한 미궁 속에서 시작되었다. 「작은 구름」은 조이스의 단편집 『더블린 사람들』(Dubliners)(1914)에 실린 전체 15편의 작품 중 “8번째”(필자 강조) 이야기이다. 노리스(Margot Norris)는 이 소설의 첫인상을 독자들로 하여금 “작은 구름처럼 완전히 헤매게”(109) 하는 작품이라고 술회한다. 짐짓 낭만적인 제목과 짧은 길이의 이 소설에 난색을 표한 연구자는 비단 노리스만이 아니다. 『더블린 사람들』의 출판 후 100여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수의 단편들이 부단히 학계의 이목을 끌어들인 반면, 「작은 구름」은 상대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단적으로 국내학계의 연구사례는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인데, 그만큼 소극적인 동향이 이러한 실정을 반증한다. 더불어 해외학계에서도 틴달(William York Tindall), 스푸(Robert Spoo) 등을 위시한 소수 학자들의 활동에 연구가 한동안 머물러 있었다.

「작은 구름」이 조이스 학자들에게 마저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한 주된 이유들 중의 한 가지는 제목이다. 앞서 노리스의 평에서도 짐작되듯이 이 소설에 대해서는 제목부터 “모호하다”(Weir 302)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초창기 연구의 흐름이 주로 제목 분석에 집중된 것도 이 때문이다. 틴달은 성서¹⁾에 기초한 제목 해석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스푸²⁾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제목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많은 구름 중에 왜 작은 구름인지, 그것이 작품 내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다. 제목 이외의 「작은 구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더블린 사람들』을 관통하는 “마비라는 전통적인 주제”(Rando 29)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핍과 편향성은 역으로 벡(Warren Beck)의 연구를 필두로 보다 총체적이고 다각화된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후 연구자들은 「작은 구름」을 “동성애”(Michael F. Davis, 234), “기상학”(Johon Gordon, 178), “상징주의에 맞서는 부성애”(Boeninger, 114), “일상 속 희망의 편재성”(Rando, 12), “의식의 자유”(LeBlanc 55) 등 다양한 시각을 견지하기 시작한다. 특히 라자르(Mary Lazar), 란도(David P. Rando), 르블랑(Jim LeBlanc) 등의 최근 연구들은 종전과 달리 「작은 구름」을 점차 긍정적으로 읽고 있다.

-
- 1) 틴달은 “제목이 엘리야가 . . . 가문 황무지에 비를 내려주는 열왕기상 18장 44절에서 나온 것”이고 “사람의 손만큼 작은, 작은 구름은 비가 내릴 첫 신호”라고 해석한다(26-27).
 - 2) 스푸는 이탈리아의 역사학자 굴리엘모(Ferrero Gulielmo)와 「작은 구름」의 연관성을 주장한다. 그는 직접 굴리엘모의 이탈리아어 원전을 영어로 번역하여 작품을 분석한다. 굴리엘모는 『유로파 지오반니』(*L'Europa Giovane*, 1897)에서 “이상주의의 덧없음”을 “작은 구름”(Una piccola nuvoletta)에 비유한다(Robinson 165). 스푸는 굴리엘모에 영감을 받아 「작은 구름」에서 현실과 꿈 사이에서 시련을 겪는 주인공의 상황을 탐구한다(403).

이 연구는 「작은 구름」에서 주인공 작은 찬들러(Little Chandler)를 가리켜 “삶의 종신형 죄수”(D 73)라고 한 표현을 찬들러와 친구의 “8년”(D 60)만의 만남에서 설정된 숫자 “8”의 상징성에 비추어 유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숫자 “8”은 작중 만연한 양가적 요소들을 해독할 결정적 실마리로써의 의미가 크다. 물론 조이스 연구에서 양가성 혹은 불확실성³⁾은 매우 보편적인 동시에 핵심적인 주제이다. 다만 기왕의 연구에서는 이 주제를 공통적으로 작품해석의 최대 난제로 지적해 왔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양가성을 작품분석의 방해요인이 아닌 주요한 도움 요인으로 파악한다. 또한 리켈메(John Paul Riquelme)를 위시한 몇몇의 연구자들은 조이스 문학의 이러한 해석적 비방향성에 대한 주요 메타포로써 “피비우스의 띠”(Riquelme 26)를 거론하기도 한다. 하지만 띠의 형태에서 순환적 속성에 주목하여 이를 「작은 구름」에 적용한 경우, 특히 숫자 “8”과 이 모형의 형태적 유사성을 포착한 경우는 아직까지 부재한다. 이 연구는 작품 속 “8”이라는 미시적이고도 비근한 숫자에서 독일의 수학자 피비우스(A.F. Möbius)의 거대 기하학 이론과의 상관성을 유추한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응 관계를 통해 작품의 순환의 대주제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는 현실과 이상의 순환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작가적 사유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것이다.

II

“8년 전에 [찬들러]는 노스월 부두에서 그의 친구[갤러허]를 배웅하며

-
- 3) 헤링(Phillip F. Herring)에 따르면 조이스 연구에서 불확실성은 “노몬”(gnomon) 즉 “불완전한 기하학적 모형에 대한 유클리드 기하학 용어”를 통해 일찍이 논의되어 왔다(4). 이때 노몬은 주로 해석적인 “확실성에 도달하는 것을 불가능”(Herring 10)하게 하는 요인으로 정의되고 “피비우스의 띠”도 유사한 맥락에서 종종 인용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고찰할 피비우스의 띠는 해석적 불확실성보다 형태적 순환성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성공을 빌어주었다”(D 60). 「작은 구름」의 시작 문장이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8”이라는 숫자와 이 숫자가 쓰인 위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밝혔듯이 이 문장은 소설의 서두이고, 작가는 여기에 다름 아닌 “8”이라는 숫자를 앞세워 두고 있다. 환언하자면 조이스는 많은 숫자 중에 유독 “8”이라는 숫자를 전체 글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글머리에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작은 글자 하나도 무의미하게 낭비하지 않기로 유명한 조이스의 글쓰기 철학과 더불어 숫자 “8”이 작품에서 무심히 읽어 넘길 기호만은 아님을 뒷받침해 준다.

첸들러는 이날 오후에 “8년” 전 런던으로 떠난 친구 갤러허와 “8”년만의 재회를 앞두고 상념에 잠겨있다. 더블린에 함께 있을 당시에는 내심 자기보다 뒤쳐진다고도 생각했던 친구가 어느새 런던 언론계의 총아가 되어 고국을 방문한다니 만감이 교차하는 것도 당연하다. 첸들러는 “그렇게 많지만은 않은 서른두 살”(D 63)의 “섬세하면서도 금욕적인 사람”(D 69)이다. 그의 작고 하얀 손은 흡사 “여성스럽고”(LeBlanc 57) 웃을 때 드러나는 하얗고 조그만 치아는 흡사 “유아스러워”(LeBlanc 57) 보이기도 한다. 그는 사실 평균보다 살짝 작은 키인데도 사람들에게 “작은 사람”(D 60)이라는 인상을 주어서 “작은 첸들러”(D 60)로 불린다. 그는 현재 아내 애니(Annie)와 결혼 한 지 2년여 남짓 되었고 그 사이에 아들도 태어났다. 그는 더블린 법학원⁴⁾에서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매사 “깔끔하고 점잖은”(D 61) 사람이기도 하다. 반면 갤러허는 첸들러와 동갑이면서 미혼이고 남자답고 호탕한 성격이다. 한 마디로 첸들러와 갤러허는 성격부터 가치관까지 서로의 “정반대”(Mahaffey and Eide 184)이다.

첸들러와 갤러허는 외양이나 성격 그리고 가치관에서도 대조를 이루는데, 이러한 대척점은 그들의 이름에 이미 암시되어 있다. 작은 첸들러는 “작은 촛불을 만드는 사람”(Mahaffey and Eide 172)인 반면, 원래 이그나티어스 갤러허는 “불같은 외부의 조력자”(Mahaffey and Eide 172)이다. 쉽게 말해 두 사람의 이름은 “촛불”과 “불”의 차이이다. 첸들러가 가느다란 촛

4) 일종의 법률협회

불을 의미한다면 “이그나티우스”(Ignatius)는 그보다 활활 타오르는 큰 “불”(fire)을 의미한다. 여기서 거듭 주목할 것은 이러한 이름이 갖는 의미상의 차이가 이후 챌들러가 갤러허의 존재에 투영해 느끼는 상대적인 자의식과 미묘하게 병치된다는 점이다. 이 점은 오늘 챌들러가 겪을 내적 혼란과 갈등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8년 만에 갤러허를 만나고, 콜레스⁵⁾에서 불빛과 조명들에 휩싸여 갤러허와 함께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갤러허의 이야기를 듣고 그[갤러허]의 방랑과 성공적인 삶의 일부분을 공유한 모험은 타고난 예민한 성격인 그[챌들러]의 평정심을 무너뜨렸다. 자기의 인생과 친구의 인생이 너무나 대조적인 것 같았고 그것이 부당한 것 같았다. 갤러허는 출생이나 교육에서도 그보다 아래였다. 그는 친구보다는 뭔가 훨씬 대단한 것을 이루리라고 확신도 했었다. . . . 그의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D 69)

챌들러는 갤러허를 만나면서 콜레스에도 처음 가보고 갤러허로부터 전해 듣는 런던이며 파리의 이야기, 언론계의 이야기 등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하다. 하지만 갤러허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챌들러는 자기와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갤러허에게 알 수 없는 거리감, 부러움, 자괴감 등으로 복잡한 심경이 된다. 챌들러는 거침없이 성공담을 풀어놓는 갤러허를 보며 전에 없이 어딘가 “저속해졌다”(D 66)고 생각하며 조금씩 “환상이 깨지는 듯한”(D 66) 기분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챌들러는 치열한 런던 언론계가 갤러허를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을 뿐이고 갤러허의 원래 “매력은 여전히”(D 66) 남아있다고 친구의 변한 모습을 애써 두둔해 보기도 한다.

챌들러의 혼란은 전적으로 출세해 돌아온 친구에 대한 웅졸한 질투나 부러움 때문만은 아니다. 챌들러가 갤러허를 만나기 전까지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D 60)고 내심 뿌듯해하는 데서도 갤러허에

5) 더블린의 고급식당

대한 챌들러의 애뜻함이 거듭 드러난다. 달리 말해 챌들러와 깰러허는 모든 면이 상반되는 친구이지만 신기하게도 적대적인 관계는 아니다.

한 무리의 피죄한 아이들이 거리에 나와 있었다. . . . [챌들러]는 그 아이들에 대해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는 그 작은 해충 같은 삶들을 빠져나와 한때 더블린의 귀족들이 으스스대던 지금은 황량하고 을씨년스러운 저택들의 그림자 아래를 지나갔다. 과거의 기억은 아무래도 좋았다, 왜냐하면 지금 그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 (D 61)

챌들러는 퇴근을 해서 마침내 콜레스로 향한다. 챌들러가 법학원을 나서자 당장 그의 눈앞에는 어김없이 “해충 같은 삶”과 황량한 고택들이 흩어져 있다. 챌들러가 현재 살고 있는 더블린의 변함없는 일상적 광경이다. 챌들러는 그런 더블린 시내를 낮이건 밤이건 “불안하면서도 들뜬 것처럼”(D 62) 잔걸음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온 지 30여 년 만에 챌들러는 이날만큼은 주체가 안 될 만큼의 “기쁨”에 벅차 있다. 무엇보다 그 기쁨은 깰러허와의 재회에 대한 부푼 기대감과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볼 때 챌들러와 깰러허의 관계는 『율리시스』(*Ulysses*)(1922)에서 팽팽한 긴장감과 대결구도로 일관된 친구 사이인 스티븐(Stephen Dedalus)과 멀리건(Buck Mulligan)과는 달리 상당한 막역지간임을 알 수 있다. 깰러허는 챌들러에게 한번쯤 그렇게 살고 싶은 선망의 대상 곧 “자유의 아바타”(LeBlanc 58)라 할 수 있다. 챌들러는 깰러허를 경쟁자로서만 막연히 질투하거나 부러워하기보다 오히려 그를 통해 누려보지 못한 삶을 대리 경험하는 동시에 자신의 현주소를 반추하는 중요한 기점을 맞는다.

전체적인 전개에서 챌들러가 깰러허를 만나기 전과 후의 감정선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다. 깰러허를 만나기 전까지 챌들러의 심리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으로 충만해 확연한 상승세를 그린다. 하지만 마침내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 그의 감정선은 급격한 하강곡면을 맞는다. 그 과정에서 챌들러의 의식은 그가 이제까지 살아온 “편협한 삶”(Hobbs 24)의 궤적

위를 선회한다. 결국 챌들러가 갤러허와 만남 후에 보이는 감정적 하향선은 갤러허 등장 전의 감정 상태로 귀착한다. 챌들러의 감정이며 일상은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챌들러는 약속을 앞두고 잠시 갤러허 같은 일대 변화를 꿈꾸고 시인으로서의 비전에 심취하기도 했다. 그는 일말의 변화를 꿈꾸며 갤러허를 만났지만 당장 그의 삶에는 표면적으로 아무런 변화도 없다. 들떴던 감정도 이미 사그라지고 그의 앞에는 다시 각박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일차적으로 이렇게 현실에서 희망 다시 현실로 이어지는 챌들러의 감정적 패턴을 형상화 한다면 아마도 숫자 “8”과 흡사할 것이다.

갤러허와 챌들러의 재회에는 많은 숫자 중에서 유독 8이라는 숫자가 전면에서 드러나 있고 이후에도 소설에 서너 번 더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외에도 「작은 구름」과 숫자 8의 미묘한 관계와 관련해서는 흥미로운 사실이 몇 가지 더 있다. 첫째, 주지하듯 『더블린 사람들』에서 「작은 구름」의 배열순서가 전체 15편의 작품들 중에서 정확히 “8번째”이다. 둘째, 라자르(Mary Lazar)에 따르면 조이스가 망명지 이탈리아의 트리에스테에서 이 소설을 쓴 때가 24살이었는데(61), 이 나이는 소설에서 챌들러가 갤러허와 노스웰 부두에서 석별의 정을 나눴던 때이기도 하다. 챌들러와 갤러허의 현재 나이 32살에서 8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그들이 24살이었다는 셈이 된다. 이 경우에 24라는 숫자도 2와 4를 곱하면 그 값이 8이 된다.

챌들러는 마침내 유명한 언론인이 된 갤러허를 만나러 가면서 “성공하고 싶다면 떠나야 해. 더블린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D 62-63)라고 한다. 이 부분만 본다면 챌들러는 “자신의 실패를 너무나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기꺼이 절망적으로 받아들이는”(LeBlanc 55) 것처럼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챌들러의 생각은 그러한 패배감을 극구 포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진솔할 수도 있다. 챌들러라고 무한 반복되는 갑갑하고 우울한 더블린 생활을 벗어나고픈 욕망이 없을 리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챌들러가 이렇게 더블린이라는 소도시에 갇힌 자신의 삶을 뼈저리게 의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일찍이 더블린을 탈출한 갤러허와의

만남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챌들러는 갤러허를 만남으로써 외면하고
픈 적나라한 현실과도 뒤늦게 조우한 것이다.

[챌들러]는 그 질문[왜 결혼을 했을까?]에 생각이 멈춰 있다가 불안하
게 방안을 둘러보았다. 신혼집을 위해 할부로 샀던 예뻐던 가구도 뭇
가 인색해 보였다. . . . 마음속에서 삶에 대한 무딘 분노가 치밀었다.
이 작은 집에서 벗어날 수는 없단 말인가? 갤러허처럼 멋지게 살아보
기에는 너무 늦었던 말인가? 런던으로 떠날 수는 있을까? 아직도 값야
야 할 가구의 할부금이 있었다. (D 72)

챌들러는 갤러허를 만나고 저녁 아홉시 무렵 귀가한다. 집에 돌아온
챌들러는 갤러허가 이룬 것 같은 성공에 대한 미련도 없지 않았지만 막상
방안을 둘러보니 그에게는 결혼 초에 할부제로 산 가구의 남아있는 할부
금이 먼저 떠오른다. 그가 갤러허처럼 그리고 시인 “바이런”(D 72)처럼 혈
혈단신 꿈을 좇아 런던이며 파리 같은 “약속의 땅”(LeBlanc 58)으로 자유
롭게 떠나는 것은 애당초에 불가능한 것이다. 자유로운 갤러허가 부럽지
만 기실 것처럼 살 수 없는 것이 챌들러의 현실이다. 잉거솔(Earl G.
Ingersol)은 작품의 도입부터 유난히 “세부적”으로 묘사된 챌들러의 외양
이나 그가 속한 장소들이야말로 스스로 “삶의 종신형 죄수”(D 73)라고 인
식하는 세계에 대한 환유라 본다(30). 챌들러를 에워싼 무수한 “세부적”인
것들은 결국 그의 “자유”와 “시인”으로서의 꿈을 가로막는 “걸림돌”
(Ingersol 29)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작은 구름」에서 이러한 모티프들은
본질적으로 양가적이다. 즉 이 장치들을 “걸림돌”로만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챌들러가 애니가 집을 비운 사이 우는 아기를 안고 바이런의 시를
읽으려다 내려놓는 장면은 작품기저의 이러한 양가성을 극적으로 재현해
플롯을 절정으로 끌어올린다.

소용없었다. [시를] 읽을 수가 없었다.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다. 아기
의 울음소리가 그의 고막을 뚫고 들어왔다. 소용없었다, 소용없었다!
그는 삶의 종신형 죄수였다. 그는 화가 나서 팔이 떨렸고 잡자기 아기

얼굴로 몸을 굽혀서 소리를 질렀다: 그만! (D 73)

첸들러는 깰러허를 만나고 결과적으로 더 침울해진 기분을 시로 잊어 보려 한다. 하지만 하필 애니⁶⁾가 커피를 사러 간 바람에 한 손에는 아기를 안고 한 손에는 시집을 든 채 시를 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던 아기가 첸들러의 낭송 소리에 깨더니 울기 시작해 그 울음을 좀처럼 멈추지를 않는다. 그러자 첸들러는 좋아하는 시 한편도 마음대로 읽을 수 없는 현실을 재차 깨닫고 스스로 “삶의 종신형 죄수”라고 여긴다. 급기야 첸들러는 울분에 차서 아기에게 “그만” 그치라고 소리를 지른다.

첸들러는 우는 아기를 안고 “소용없다”고 무력하게 되뇌고 중국에 아기에게 “그만” 멈추라고 소리친다. 이 장면은 일견 “삶의 종신형 죄수”라는 딜레마에 절묘하게 덧씌워진다. “소용없다”는 것은 그 유형(流刑)의 굴레에 제아무리 맞서도 끝내 제자리라는 숙명론적 태도를 연상시킨다. 연장선상에서 “그만”이라는 외침은 그러한 숙명을 의식한 단말마적 절규처럼 들린다. 하지만 첸들러의 외침을 절망과 체념으로만 치부해 버리기에는 한층 심오한 면이 있다. 이 순간 첸들러는 어떤 고매한 이상도 그 뿌리는 바로 “현실”에 있다는 중요한 이치를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종신형 죄수”는 단순히 첸들러의 고단하고 반복된 삶의 패턴을 은유하기보다 어떠한 이상도 현실과 별개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뼈아픈 각성을 다분히 내포한다. 마찬가지로 첸들러가 “소용없다”고 한 것도 그러한 현실에 눈감은 채 추구하는 이상이 한낱 소용없다는 뜻일 수 있다. 요컨대 조이스는 삶의 종신형 죄수의 이러한 양가적 함의를 뫼비우스 띠의 딜레마, 이 띠와 유사한 모양의 숫자 “8”로써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뫼비우스의 띠는 긴 직사각형 종이의 양쪽 끝 모서리를 한번 비틀어 연결해주면 형태가 완성되는데, 그 모양이 바로 숫자 “8”의 모양과 일치한다. 그렇게 완성된 띠의 모양은 “공간을 나타내는 유클리드(Euclide)의 통

6) 라자르는 애니의 존재와 부재에서도 균형의 문제를 유추한다. 그녀는 중국에 애니가 커피를 사서 돌아옴으로써 “아기, 아버지, 어머니”로 이루어지는 “가정의 삼위일체를 완성”한다고 본다(12).

상적인 기하학적 방식을 뒤집는다. 왜냐하면 그 띠가 실상은 한 개의 면을 가지고 있지만 두 개의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Evans 119)이다. 그 결과 끈 전체가 “계속 이어진”(Evans 119) 것처럼 보이게 된다. 풀어 말해 피비우스의 띠는 긴 직사각형 종이를 한번 비틀어 양끝을 붙여주면 원래 안이었던 면이 겉으로 보이고 겉이었던 면이 안으로도 보이면서 안과 겉의 구분이 없어지는 곡면을 말한다. 따라서 피비우스의 띠에는 “안과 밖, 시작과 끝, 앞과 뒤가 동시에 공존”(윤명옥 94)한다. 윤명옥은 피비우스 띠의 이렇게 다분히 양가적인 속성을 띠 안에는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것들 또는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것들이 각각 분명한 경계를 지어 별도의 영역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특징적인 영역을 공유하면서도 ‘서로의 경계를 허물면서 하나로 이어지는 것’(필자 강조)”(94)으로 설명한다. 더불어 이러한 현상이 개인에게 일어날 경우에는 자아의 “통렬한 현실 인식”(윤명옥 94)으로 확장된다고 역설한다.

조이스가 「작은 구름」에서 숫자 8의 상징을 피비우스의 역설로부터 영감을 받았으리라는 추론은 라이스(Thomas J. Rice)의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앞서 본 “노몬”의 개념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라이스에 의하면 유년기의 조이스는 수학시험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을 정도로 수학에 재능도, 관심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성년이 되어 발표한 작품들은 이상하게 그토록 싫어했던 수학으로 “과포화상태”인데, 이는 흡사 그가 수학 못지않게 싫어했던 종교로 작품이 “과포화상태”인 것과 같은 양상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의외성은 “논리적이고 일관된” 사고방식을 강조하며 수학과 종교, 특히 수학에서는 유클리드의 기하학을 강조한 예수회 교육의 영향이 크다(13). 그 결과 조이스의 “유클리드적 세계관”(Rice 25)은 향후에 그의 작품구성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조이스가 『더블린 사람들』을 전체 15편의 4개 그룹으로 치밀하게 배열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따라서 이 단편집이 지극히 “수학적인”(Rice 26) 구성에 뿌리를 두고 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볼 때 「작은 구름」에서 “8”이라는 숫자도 단지 우연의 일치로 설정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뢰비우스의 띠를 전제하고 챌들러와 갤러허가 콜레스에서 나눈 대화를 보면 결혼 이야기는 특히 흥미롭다. 이미 알고 있듯이 챌들러는 현재 결혼을 했고 갤러허는 미혼이다. 두 사람은 기혼자와 미혼자로서 각자의 입장을 은연중 대변한다. 챌들러가 갤러허에게 결혼운을 떼자 갤러허는 “나는 그 ‘자루’안에 내 머리를 넣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인생 맛도 더 보고 세상 구경도 더 할 것”(D 70)이라고 단언한다. 갤러허는 결혼을 “자루”라고 하는데, 맥락상 한번 들어가면 벗어날 수 없는 족쇄와 매 일반이라는 어조가 강하다. 그러자 챌들러는 “너도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 . . 자루를 쓰게 될 것”(D 70)이라고 응수해 준다. 미혼인 갤러허는 막상 결혼생활의 자루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반면 챌들러는 그 자유가 무한히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격하는 격이다. 이 대화는 현재 “결혼생활의 좌절감”(Henke 45)을 절감중인 챌들러의 경우에 이입되어 다분히 결혼에 대한 그의 복잡한 심리적 반향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이라는 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그 자루가 누구도 예외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이 말은 그 자루가 누구도 예외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챌들러는 결혼의 “자루”를 쓰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응당 써야할 당위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챌들러가 의도한 “자루”는 훨씬 더 광범위한 딜레마에 가깝고 이 점 또한 “자루”에서 무한반복의 루프인 기하학 모형을 방불케 한다.

「작은 구름」은 성격, 사는 곳,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양극점에 있던 챌들러와 갤러허의 “8년”만의 극적 만남을 예고하면서 시작한다. 먼저 이러한 설정이 뫼비우스 끈의 양극단이 만나면서 2차원의 곡면이 생겨나는 과정을 형상화한다. 이 만남에서 챌들러는 다소 과장되어 보이는 갤러허의 태도를 보고 천성이 예민한 그의 심리적 “평형”을 깨트리는 같았다고 한다. 하지만 갤러허는 넓게 보면 거꾸로 그 평형을 유지해주는 친구이다. 보이닝거(Stephanie P. Boeninger)가 간파하듯이 갤러허와 챌들러는 그들에게 결여된 부분을 채워줌으로써 궁극적 균형을 맞춘다(126). 스텐어트

(John F. Stuart)의 말처럼 피비우스 띠가 단순히 띠의 양끝이 뿔 수 없이 맞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을 붙여서 “하나”로 만들어진 “같은 것의 양면”인 것과 유사한 관계라 할 수 있다(119). 챠들러와 꺄러허는 단적으로 기혼과 미혼이라는 서로 다른 형태의 인생의 굴레를 쓰고 있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 다 인생 자체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한 숙명은 그들을 한 점으로 이어주는 자명한 사실이다.

소설의 말미에 아기를 울리고 속수무책으로 아내에게 타박까지 당하며 끝내 “회한의 눈물”(D 74)을 흘리는 챠들러의 모습은 결혼생활의 딜레마 속 고전중인 그의 현실에 방점을 찍는다. 이런 모습은 다분히 결혼을 개인의 비상을 막는 현실의 “뒳”(Lobner 76)으로 해석하게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로브너(Corina del Greco Lobner)는 챠들러를 결혼의 뒳에 걸린 채 낭만적 환상을 좇는 현실 판단력이 부족한 인물로 평가한다(76). 결과적으로 챠들러는 자유를 찾아 런던으로 떠나지 않았고 읽던 시집을 내려놓고 우는 아기를 달랜다. 챠들러는 바이런의 시를 탐독하며 막연한 이상을 추구하는 대신 자기의 눈앞에 있는 아기의 울음에 더 본능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보이닝거는 조이스가 이 장면을 통해 이상주의의 극단으로 치우친 예술을 위해 물리적인 현실세계를 희생시키는 상징주의 시인들에 대한 경종을 울린다고 한다(116). 이는 챠들러가 “작가적 자아”(Müller 173)의 투영이라는 시각과도 일맥상통한다. 조이스는 챠들러가 한 손에 든 시집과 한 손에 든 아기를 통해 예술적 이상과 물리적 현실 사이의 섬세한 균형의 절실함을 환유한 것이다. 이렇게 불 때 불시에 터진 아기울음은 이상에만 침잠하려는 아버지의 현실자각을 위한 “촉매제”(O’Grady 404)에 다름 아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챠들러로 하여금 그가 근본적으로 “예술가가 아니라 아버지”(Lazar 48)임을 일깨워 준 것이다.

삶의 종신형 죄수임을 토로하는 챠들러의 모습은 성공한 친구로 인한 자의식이나 아내의 편견 때문에 고상한 꿈을 접어버린 소심한 몽상가처럼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챠들러가 몽상가의 길을 택했다 해도 독자들은 그를 무책임한 가장이라고 성토했지 모른다. 챠들러와 꺄러허의 삶은 어느 편

이 더 나은 삶이라고 피상적으로 판단할 바가 아니다. 그럼에도 독자들은 교묘하게 깰러허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서술자의 목소리”(Norris 121)에 호도되어 챈들러의 삶을 응당 벗어나야 할 환경이라고 단정한다. 더블린에 남기로 한 챈들러의 선택은 피동적인 체념이나 절망이 아닐 수도 있다. 챈들러는 아기가 울다 지쳐 숨이 잦아들자 행여 “죽었으면 어찌나!”(D 73) 소스라치며 아기를 품에 안는다. 이 순간 챈들러에게 품 안에 있는 아기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챈들러는 무의식적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판단한 것이고 그 판단이 곧 뼈아픈 현실인식의 계기가 된 것이다. 챈들러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부단히 균형 잡기를 해야 하는 인간적 숙명을 깨우친 것이다. 챈들러가 삶의 종신형 죄수인 것은 그 딜레마가 숫자 “8”의 모양처럼, 뫼비우스의 띠처럼 무한반복의 여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품 안의 아기는 챈들러의 명징한 현실각성에 다름 아니고 그 각성의 지점에서 작은 희망이 명멸한다.

III

「작은 구름」에 대한 학계의 중론은 전체적으로 확신에 차서 읽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제목부터 여기저기 대입해 보아도 분명한 해석이 쉽사리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소설은 제목부터 독자들을 걸려 넘어뜨리는 함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작품 기저의 “양가성”(Beck 173)을 전제하고 보면 작품의 해석은 의외로 간단해 질 수 있다. 더불어 소설의 제목도 독자들을 기다리는 함정이기 보다 챈들러에 대한 깰러허처럼 오히려 독자들의 조력자가 될 수 있다. 「작은 구름」은 제목에서 시작해 온통 대응관계가 주조를 이룬다. 단적으로 마하피 등이 설명하듯 “작은 구름”이라는 표현 자체가 “작은 방해물”인 동시에 “작은 기회”를 뜻할 수 있다(166). “챈들러의 집, 아내, 아기 그리고 그의 지연된 시창작의 꿈”(Mahaffey 166) 또한 챈들러에게는 기회이자 방해물이라는 이중적인 의미

를 갖는다. 관건은 이 무한대의 양가물들이 언제나 양자택일이라는 “선택”(Norris 120)을 요하고 그 선택의 딜레마는 누구도 예외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선택의 문제는 단지 채들러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훨씬 “보편적인”(Norris 121) 함의를 띤다.

「작은 구름」에서 조이스는 선택의 딜레마에 처해서 어느 한쪽의 극단에 서는 것은 불균형적인 선택임을 암시한다. 필연적으로 그 선택은 다른 극단의 희생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대신 조이스는 극단의 조화를 모색한다. 조이스가 작품의 서막에 모든 것이 정반대인 두 친구의 “8”년만의 상봉을 알린 것이 무엇보다 이러한 의도와 맞닿아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숫자 “8”은 한층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야기의 출발점이 서로 정반대인 막역지우의 “8”년만의 만남인 것은 같은 이치로 완성되는 피비우스의 띠를 다분히 연상케 한다. 띠의 양극단은 서로 다른 지점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같은 지점에서 만난다. 마찬가지로 채들러와 깬러허도 서로 다르지만 오히려 그 다름으로 서로의 결핍을 상쇄해 궁극적 균형을 이룬다. 현실과 이상이라는 삶의 대명제 또한 서로의 극단에 존재하지만 결국 삶이라는 한 점에서 만나 부단히 흘러간다. 따라서 현실이 없는 이상 또는 이상이 없는 현실, 어느 쪽도 완전한 선택일 수는 없다. 다행히도 양극단의 조화는 현실로부터 아득히 먼 이상향만은 아니다. 여기에 삶이라는 “자루” 안에서 고뇌하는 모든 채들러들에게도 일말의 희망은 있다.

(전남대)

인용문헌

- 윤명옥. 「피비우스의 띠로 본 엘리자베스 비숍의 「대기실에서」. 『서강인문논총』, 27호, 2010, pp. 93-119.
- Beck, Warren. *Joyce's Dubliners: Substance, Vision, and Art*. Duke UP, 1988.
- Boeninger, Stephanie Pocock.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can happen to a man: Fatherhood as a Challenge to Symbolism in ‘A Little Cloud.’” *Joyce Studies Annual*, vol. 4, 2013, pp. 114-128.
- Davis, Michael F. “A Little Cloud of Queer Suspicion.” *Joyce Studies Annual*, vol. 7, 2016, pp. 231-62.
- Evans, Dylan. *An Introductory Dictionary of Lacanian Psychoanalysis*. Routledge, 1996.
- Gordon, John. “‘A Little Cloud’ as a Little Cloud.” *European Joyce Studies*, vol. 7, 1997, pp. 167-80.
- Henke, Suzette A. *James Joyce and the Politics of Desire*. Routledge, 1990.
- Herring, Phillip F. *Joyce's Uncertainty Principles*. Princeton UP, 1987.
- Hobbs, John. “Are Joyce's Dubliners Paralysed? A Second Opinion.” *Papers on Joyce*, vol. 15, 2009, pp. 17-29.
- Ingersol, Earl G. “Metaphor and Metonymy in James Joyce's ‘A Little Cloud’ and Bryan MacMahon's ‘Exile's Return’.” *The Canadian Journal of Irish Studies*, vol. 16, no. 2, 1990, pp. 27-35.
- Joyce, James. *Dubliners*. Vintage, 1993.
- Lazar, Mary. “James Joyce's ‘A Little Cloud’ and Chandler's Tears of Remorse.” *Journal of the Short Story in English*, vol. 36, 2001, pp. 41-63.
- LeBlanc, Jim. “A Sensation of Freedom and the Rejection of Possibility in *Dubliners*.” *Rethinking Joyce's Dubliners*, edited by Claire A. Culleton with Ellen Scheible, Palgrave, 2021, pp. 51-68.

- Lobner, Corinna del Greco. "A "New Life" for "A Little Cloud": Byron, Dante, and the Meanderteller." *James Joyce Quarterly*, vol. 36, no. 2, 1996, pp. 73-83.
- Mahaffey, Vicky and Marian Eide. *Collaborative Dubliners: Joyce in Dialogue*. Syracuse UP, 2012.
- Müller, Timo. *The Self as Object in Modernist Fiction: James, Joyce, Hemingway*. Königshausen & Neumann, 2010.
- Norris, Margot. *Suspicious Readings of Joyce's Dubliners*. U of Philadelphia P, 2003.
- O'Grady, Thomas B. "Little Chandler's Song of Experience." *James Joyce Quarterly*, vol. 28, no. 2, 1991, pp. 399-405.
- Rando, David, P. *Hope, Form, and Future in the Work of James Joyce*. Bloomsbury, 2022.
- Rice, Thomas J. *Joyce, Chaos, and Complexity*. U of Illinois P, 1997.
- Riquelme, John Paul. *Teller and Tale in Joyce's Fiction: Oscillating Perspectives*. Johns Hopkins UP, 1983.
- Robinson, James. *Joyce's Dante: Exile, Memory and Community*. Cambridge UP, 2016.
- Spoor, Robert E. "'Una Piccola Nuvoletta': Ferrero's 'Young Europe' and Joyce's Mature 'Dubliners' Stories." *James Joyce Quarterly*, vol. 26, no. 4, 1987, pp. 401-10.
- Stuart, John Francis. *The Civilization of the Mobius Strip & Other Essays*. Lulu, 2018.
- Tindall, William York. *A Reader's Guide to James Joyce*. Noonday, 1959.
- Weir, David. "'A Little Cloud': New Light on the Title." *James Joyce Quarterly*, vol. 17, no. 3, 1980, pp. 301-02.

Abstract

The Reunion after “8” Years and the Dilemma of Infinity:
The Implications of Number “8” in a “A Little Cloud”

Eunsook Park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James Joyce’s “A Little Cloud,” focusing on the symbolism of number “8” in the text. Most of all, the fact that Joyce opens his story with the particular number is noteworthy: “Eight years before he had seen his friend off at the Northwall and wished him godspeed.” (D 60) The first line hints about two friends who have been apart for “8” years. They are going to meet again today in “8” years. Besides, Joyce arranges “A Little Cloud” as the “8th” story in *Dubliners* based on the quite “mathematical” (Rice 26) structure.

This paper sees number 8 in “A Little Cloud” as a metonym for the dilemma of Möbius strip. Basically the strip creates ambivalence by affixing two opposite poles. By the happy coincidence, ambivalence or uncertainty is a dominant theme in Joyce’s literature as well. Consequently some Joyceans allude this unoriginability to the same characteristic of a strip. However no study reads “A Little Cloud” in line with the morphology of a strip. There are none to suggest the morphological correspondence between number “8” and a strip, in particular. This study explores these simply overlooked morphological similarities between two motifs to reexamine the theme of circularity in the novel. The meeting of two extremities of a loop generates indeterminacy on its surface along with the dilemma of infinity; likewise, the reunion of two opposite friends unfolds an indeterminate plot along with the dilemma of infinity in life. These parallels make the specific number significant as another

morphology of a Möbius strip in the novel. Especially, “A Little Cloud” emphasizes that the reality is not a separate realm from the ideal in essence: it implies that both ends meet unendingly to keep in ultimate equipoise in life.

■ **Key words** : “A Little Cloud,” Little Chandler, Ignatius Gallaher, Number 8(Eight), Dilemma, Equipoise, Ambivalence, Reality, Ideal, Möbius strips
 (「작은 구름」, 작은 찬들러, 이그나티어스 깔러허, 숫자 8, 딜레마, 평형, 양가성, 현실, 이상, 뫼비우스의 띠)

논문접수: 2022년 6월 1일

논문심사: 2022년 6월 1일

게재확정: 2022년 6월 20일